황금 물결 일렁이는 사자평 넘어 위법망구 새기다

해인사에서 통도사까지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18일 간의 여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승보종찰 송광사에서 시작해 법보종찰 해인사를 거쳐 불보종찰 통도사까지 한반도 남쪽을 가로지르는 대장정이었다. 5개 광역지자체와 12곳 기초지자체를 거쳐 삼보사찰을 포함한 9개 사찰을 지났다. 누적 이동 거리 423km, 1077리를 150여 명 순례단이 오직 두 발로 걸어 이뤄낸 벅찬 순간들이었다.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기치로 가는 곳곳마다 예기치 않은 환대 속 한국불교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지난호에 이어 순례 세 번째 이야기를 싣는다.

호국성지 홍제사 도착

삼보사찰 천리순례 15일차를 맞은 순례단이 밀양 호국 성지에 다다랐다. 홍제사는 사명대사가 태어난 무안면에 자리한 곳으로 '국난 때마다 땀을 흘리는 비석'으로 유명한 표충비가 있는 곳이다. 이른 새벽 출발해 사명로를 지나 홍제사에 도착한 천리순례단은 홍제사 설법보전 참배부터 했다. 이어 사명대사의 충정이 담겨 있다는 표충비각을 둘러봤다.

사명대사가 입적할 당시 조선 왕실은 지금의 무안면 중산리에 표충사라는 사당을 지어 사명대사를 제향했다고 전해진다. 병자호란 이후 사당을 보수하고 규모를 넓히며 현재의 표충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표충비만 지금의 홍제사 자리에 남았다.

사명대사 흔적이 남겨진 무안면에 잠시 머문 순례단은 홍제사에 이어 표충사를 향해 다시금 동쪽으로 향했다. 밀양에서 마지막 삼보사찰 통도사가 있는 양산까지는 약 80km가 남았다. 지난 15일 간 300km를 직접 두 발로 걸어 한반도 남쪽을 가로질러 온 만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정에 순례단 얼굴이 환하다.

수장의 어깨…표충사 도착

밀양 산외면의 새벽,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을 이끄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회주 자승스님 어깨 위로 비가 내린다.

종단사 최초로 총무원장을 두 번이나 역임하며 조계종단 정점을 찍은 자승스님이지만 이 길 위에선 '한 사람의 순례자'와 다를 바 없다. 불빛 하나 없이 적막한 어둠 속 오롯이 혼자다. 회주 스님을 따르는 순례단도 끊임 없는 번뇌와 망상 속 100여 시간 쌓여온 피로와 부상에 시달릴 터. 그럼에도 힘든 기색을 비추지 않고 또 다시 한 발 앞을 내딛는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16일차인 10월16일, 송광사 해인사를 거쳐 351km를 걸어온 순례단이 악조건 속 표충사에 이르렀다. 오전 내 이어진 가랑비와 살갗을 파고든 추위에도 한 발 한 발 내딛어 24km를 걸었다. 금천리와 단장리를 넘어 오는 내 인도와 차도, 농로 등 구별 없는 길을 지났다. 비가 오고 몸이 젖어도, 휘어지고 구부러진 길이 나타나도 온전히 길에 몸을 맡겼다.

빗 속 장시간 정진에도 순례단은 '표충사당'부터 찾았다. 사명대사 정신을 기리며 헌다 한 후 대광전으로 이동, 참배하고 불전했다. 불자로서의 기본, 이번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발원 중 하나인 '삼보에 대한 예경'을 지키기 위함이다. 새벽부터 비를 맞으며 걸었을 순례단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따뜻한 보이차를 대접한 옥연화보살은 "큰 스님들이 권위를 내려놓고 재가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 곁 곳곳에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존경의 마음이 솟아 난다"며 "이 이상의 불교 중흥, 포교가 따로 없다"고 했다.

마지막 고비 넘어…

삼보사찰 천리순례 17일차인 10월17일, 표충사 설법전 마당에서 천막 텐트에 의지해 하룻밤을 묵은 순례단이 오전5시 여명이 트기 전 산으로 향했다. 표충사 우화루 옆 흐르는 남계천을 따라 오르면 이번 순례 최대 난코스로 꼽히는 사자평 가는 길이 열린다. 고도 989m에 달하는 억새평원을 오르기 전, 하룻밤 새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으로 기습추위에 꽁꽁 언 몸을 녹여내는 순례단 주위로 긴장이 감돌았다.

곳곳에 얼음 꽃이 핀 산길과 가파른 나무계단을 한참이나 번갈아 오르던 순례단 앞에 어느새 사자평(獅子坪)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자평은 사명대사와도 인연이 깊다. 조선시대 임란의 공신인 사명대사는 나라가 전란에 빠져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의병과 승군을 이끌고 억새 밭이 우거진 사자평으로 향했다. 은빛 물결 일렁이는 이 광활한 평원에서 사명대사는 의병과 승군을 훈련시키며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지켰다.

사명대사의 호국 정신이 서린 이 드넓은 평원을 순례단은 두 발로 직접 걸었다. 솜처럼 하얀 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줄기와 잎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가을 파도 속으로 붉은색 가사를 수한 스님 뒤 순례 가사를 덧입은 재가자들이 따랐다. 300여 명이 한 줄 행렬을 이뤄 억새 물결 사이를 지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장관을 이뤘다.

고된 여정을 걷는 순례단을 위해 '상월선원 만행결사' 천막결사에 동참했던 9명 스님은 음성 공양을 하며 지천에 환상을 만들어냈다. 잦아든 바람 속 억새 사이로 소리꾼 장사익의 구성진 가락이, 진각스님과 제민스님의 낮고 깊은 목소리가 울렸다. 영남 알프스로 지칭되는 재약산 능선을 타고 울리는 노랫소리에 어느새 순례단 발걸음에도 힘이 실렸다. 순례단을 위해 이날 차가 오르지 못하는 사자평까지 직접 지게를 지고 간식을 날랐던 진각스님은 "상월선원 만행결사가 자비순례와 천리순례로 이어지면서 감동을 전하는 현장을 보니 감정이 남다르다"고 했다.

마지막 삼보사찰에 이르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18일차인 10월18일,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울산을 출발해 23km를 걸어 마지막 삼보사찰인 통도사에 도착했다. 비바람과 추위를 헤치고 구법의 천리길을 걷는 동안 순례단은 더 똘똘 뭉쳐 하나가 됐고, 모두의 바람대로 순례의 원만 회향을 이뤄냈다. 통도사에 들어서는 순례 단원들의 이름 하나 하나가 호명될수록 얼굴엔 가슴 벅찬 보람이 스쳤다.

이른 새벽 추위와 싸우며 통도사에 도착한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은 대중의 환대 속 일주문에 들어섰다. 대웅전을 지나 부처님 법신이 모셔진 금강계단을 맨발로 올랐다. 18일 간의 기나긴 여정이 여기저기 찢긴 상처와 부르튼 발에 고스란히 새겨 있었다.

순례단은 부처님 법신이 모셔진 이 금강계단 불사리탑을 세 번 돌며 부처님께 삼배의 예를 올린 뒤 다시 한번 일불제자로서의 본분사를 다짐했다.

이어진 회향식에서 회주 자승스님은 주지 현문스님에게 상월선원 결사 정신이 담긴 죽비를 전달했다. 현문스님은 "여러분의 소중한 한 걸음 한 걸음이 과거와 미래를 향한 등불이며 한국불교의 힘찬 발걸음이 될 것"고 했다. 통도사 방장 성파스님도 "인고의 수행 과정을 겪어 훌륭한 결과를 이룬만큼 이금 이 자리 이타의 마음을 새겨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향식을 마지막으로 순례단원 진오스님이 천리순례단을 대표해 부처님 전에 회향 발원문을 읽었다. "저희는 중생 곁으로 움직이는 불교, 적극적인 불교, 친절한 불교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상월선원 만행결사의 깃발을 중생계와 허공계에 회향하오니 모든 생명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길 발원합니다."

통도사=박봉영 이경민 기자

❶천리순례 17일차, 황금빛 물결이 일렁이는 사자평 억새 밭 사이로 가사를 수한 순례단이 지나고 있다. ❷상월선원 만행결사 회주 자승스님과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이 통도사 금강계단을 돌고 있다. ❸천리순례 15일차, 뙤약볕 아래 장시간 행선을 하던 순례단이 잠시 쉬는 시간, 간식을 먹고 물도 마시며 힘을 얻는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2022년도 승려연수교육 인증과정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에서는 종단 승려연수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불교계의 기관 또는 단체가 개설한 승려교육과정에 대해 종단이 시행하는 연수교육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승려 연수교육에 관한 령' 제6조에 의거하여 '2022년도 승려연수교육 인증과정' 신청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기간 : 2021년 11월 1일(월) ~ 11월 15일(월)
(마감일 우편소인분에 한함)

▌신청대상 및 내용
- 신청대상 : 스님들에게 유용한 교육과정을 개설 · 제공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교육내용 : 종단 스님의 수행, 교학연찬, 전법교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2년 이상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교육
- 교육시간 : ① 숙박교육의 경우 – 2박 3일 12시간 이상
② 통학교육의 경우 – 10강 이상, 1강당 90분 이상, 3일 이상 진행(총 15시간 이상)

▌신청서류
- 신청 공문
- 승려연수교육 인증과정 신청서류
  – 인증신청서(소정양식) 1부
  – 교육계획서 1부
  – 강의시간표 1부
  – 강사이력서 각 1부
  – 신청서류는 공문양식으로 직인 포함 원본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확정통보 : 해당 기관에 개별 통지(12월 초 예정)

▌유의사항
- 신청서는 ①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http://www.buddhism.or.kr) ⇒ 승가교육 ⇒ 교육원공지 또는 ② 연수교육홈페이지(http://monkedu.buddhism.or.kr) ⇒ 게시판 ⇒ 공지사항 공고 게시물에서 다운받아 사용
- 교육계획서, 강의시간표, 강사이력서는 기관양식 사용
- 인증기관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스님들은 당해 연도 연수점수 30점 부여

▌제출처 : (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문 의 : 교육원 연수팀 02–2011–1807

불기2565(2021)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진 우